

尹, 국무회의서 총선 패배·국정 운영 입장 밝힌다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안 해 ... 야당과의 협치 언급 주목 국정 쇄신의 '가늠자' 될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선에 고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와 국정 운영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10일 총선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발표하는 총선 관련 메시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별도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을 통한 발표는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구체적인 국정 쇄신 방향, 차기 국회와의 협력 방침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입법부 수반되는 각종 국정과제를 임기 내에 실현하려면 거대 야당과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어느 수준으로 '협치 제스처'를 취할지도 주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이 집단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향후 인선에 대한 방침이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 날인 지난 11일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전한 바 있다.

이후에는 참모진과 국정 방향 및 총선 수습책에 대한 내부 논의를 이어왔다. 전날 주재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가 유일한 공개 일정이었다.

당초에는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과 같은 방식을 통해 총선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국무회의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무회의의 때 총선 관련 발언을 한다면 따로 대국민 담화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강도 국정 쇄신의 첫 번째 '가늠자'가 될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선을 두고는 윤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총리 후보군으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중진인 주호영·권영세 의원 등이 거론되지만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야당에서 주요 당직을 고루 거친 데다 김대중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내 인사 청문회에서 야권이 반대하기 어려운 인사라는 평가가 있다. 다만 반대로 이런 출신 성분이 총리 지명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주 의원과 권 의원은 모두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격이라는 평가가 많다. 다만 판사 출신인 주 의원은 대구에서 6선 고지에 오르며 '영남 이미지'가 강하고, 권 의원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2년 선배와 검사 선배로 친분이 있다는 이미지를 지녔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최측근이자,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 없는 비서실장 후보군을 두고도 하마병이 쏟아지고 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호남에서 재선한 이정현 전 의원 등이 우선 거론된다. 김한길 위원장과 장제원 의원, 유기준 전 의원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전날에는 원 전 장관이 비서실장으로 유력하다는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지만, 서울대 법대에 검사 출신이라는 점이 걸린다는 의견도 있다. 이 부분은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권영세 의원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총선 국면에서도 "민심과 불통인 서울대 법대 검사 정권"이란 프레임이 야당이 내세운 공격 포인트 중 하나였다.

비서실장이나 총리가 대통령과 적절한 긴장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온다. 이른바 '쓴소리'를 할 사람을 파격 발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시 정권에도 칼을 들이대던 이회창 전 감사원장을 총리로 기용한 사례 등을 참고해야 한다는 말도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가정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을 사정 가능한 채 되살려 민심 관련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구상에서 나온 방안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5일 국회에서 4선 이상 중진 당선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공통취재단>

국힘, 비대위 거쳐 당대표 선출 '가닥'

위원장 인선 등 오늘 결론 늦어도 6~7월엔 전당대회

국민의힘이 4·10 총선 참패로 인한 당 위기 수습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비대위를 거쳐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새 비대위원장 인선과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16일 당선인 총회를 거쳐 결론 낼 예정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5일 국회에서 4선 이상 당선인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신속히 당 체제를 정비하겠다"며 "전당대회를 하려면 당헌·당규상 비대위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위원회가 있는 상태이면 비대위를 거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최고위가 없고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데 비대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선 패배 원인을 두고 당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을 두고는 "일인 분석을 적절한 시기에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진 간담회에서는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관리형 비대위' 구성에 일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원장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전권형' 비대위가 아닌, 전당대회를 질서 있게 준비하기 위한 '관리형' 비대위에 일단 무게가 실린 것이다.

관리형 비대위를 거쳐 늦어도 오는 6~7월에는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나왔다고 한다. 당 실무진은 이날 간담회에서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을 포함해 전당대회에 최소 한 달이 소요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관리형 비대위로 가고, 최대한 빨리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여당이 비대위만 계속 반복할 순 없지 않다. 오늘 자리에서는 대부분이 빨리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

다"고 전했다.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겸직하자는 의견과 새 인물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권한대행은 "오늘 중진 의원들이 한 말씀을 참고해 내일 당선자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동혁 사무총장 및 박정하 수석대변인 사퇴에 따라 당분간 배준영 부총장이 사무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정희용 원내대변인이 수석대변인을 겸직하기로 했다고 윤 권한대행은 전했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尹 지지율 32.6%...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

리얼미터, 일주일 새 4.7%p 하락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2.6%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4.7%포인트(p) 떨어졌다. 작년 10월 3주차(32.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부정 평가는 4.1%p 오른 63.6%, '잘 모름'은 3.8%였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일간 지표는 4·10 총선이 끝난 지난 12일 28.2%로 지난 2022년 5월 9일 취임 후 기준 일간 최저치(28.7%)를 경신했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0.7%p 올랐고, 인천·경기 등에서는 내렸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9.6% ↓), 30대(7.5%p ↓), 20대(3.7%p ↓) 등에서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8.6%p ↓), 중도층(3.7%p ↓), 진보층(2.3%p ↓)에서 모두 내렸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건물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광역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